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철회 “상생”

광주·곡성공장 생산량 3-10% 늘리기로 ... 근로자 431명 감축안 철회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은 7월23일 노사가 합심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다.

오세철 사장은 최근 파업사태와 관련해 “노조측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광주와 곡성공장의 근로자 431명을 감축하려 했으나 노조측에서 광주공장 10%, 곡성공장 3%의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 상생의 길을 택했다”며 “노조가 생산성 향상 약속을 지킨다면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적자 및 인건비 상승분 등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현재의 위기를 거뜰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인당 생산성이 중국공장은 시간당 73kg에 이르지만 곡성은 63kg, 광주는 50kg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노조가 생산성 향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의 431명에 대한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6월8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 7월11일 사측이 구조조정을 철회하는 대신 광주와 곡성공장 생산량을 각각10%, 3% 늘리고 기본급 3%, 상여금 50% 인상 등의 합의안이 도출돼 파업을 풀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23>